

# 기화신문

발행: 서강 여름 기화대  
후원: 조화로운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여는  
제 8대 여학생 협의회

창간호

1995년 9월 14일 (목)



## “우리집 얼굴색은 세가지”

199x년 x월 x일

햇님이 구름에 가렸다 보였다 함

우리집엔 얼굴색이 세가지다. 난 하얀색, 엄마는 노랑색, 어제부터 대디(Daddy)가 된 아저씨는 까만색. 난 학교가기가 싫다. 애들이 자꾸만 울엄마 홍보고 날 때린다. 우리 진짜 아빠는 나 보고 싶지 않나보다. 연락도 없다. 나는 괜찮지만 돈 버느라 힘든 우리 엄마가 불쌍하다.

## “옆방 예쁜 아줌마”

199x년 x월 x일

하늘이 터진 것처럼 비내림

밤마다 짙은 화장하고 야한 옷 입고 미군아저씨들 만나는 옆방의 예쁜 아줌마를 보면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한다. 하지만 옆방의 예쁜 아줌마는 참 착하다. 내가 배고프면 밥도 주고 밤에 혼자 무서워 울면 달래주기도 한다. 근데 요즘 날 보는 아줌마의 눈은 이상하게도 슬프다. 옆집 영철이 아줌마랑 우리 엄마랑 하는 얘기 들었는데 한국 아빠랑 사는 아들이 보고 싶어서 맨날 운단다.

왜 아줌마는 그렇게 보고 싶으면서도 아들을 만나러가지 않을까?

## 내 리비치

- 2면 ..... 기지촌의 실태 <기지촌 여성을 중심으로>
- 3면 ..... 주한미군 범죄를 진단한다!
- 4면 ..... 한국사회의 매매춘 <삶을 포기한 여성들인가?>
- 6면 ..... 기화대 활동내용 <우리들의 일주일은요>
- 7면 ..... 인터뷰/동두천 두레방 김명분 간사 <인간과 인간의 교감>
- 8면 ..... 겨울기화안내 ◆ 두레방 후원인 안내

# 기지촌의 실태

## — 기지촌 매춘 여성을 중심으로

기지촌은 일반적으로 식민지 민족의 대중운동을 진압하며 혁명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한 제국주의의 반혁명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다. 남한에 있어서 4만5천여명의 주한미군은 미국의 남한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일차적 지점으로 180여개가 넘는 지역을 근거로 우리 민족의 일상적 삶을 질곡시키고 있다.

주한미군 부대주변의 대표적 기지촌은 서울 중심부에 자리잡은 이태원, 동두천, 의정부, 군산, 부산, 대구, 송탄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기지촌은 양국간의 불평등한 관계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온갖 폭력과 저질문화, 성범죄의 온상으로 교육, 문화, 지역발전의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기지촌의 매춘여성들(보통 기지촌 여성이라고 불리운다)은 낮과 밤을 바꾸어야 하는 생활, 성병으로부터의 공포와 사회적 편견과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매춘여성들 사이에서조차 '양놈에게 붙어 먹고사는 싸구려 양갈보'라는 욕을 들을 정도로 가장 열악한 사회환경에 처해 있다.

기지촌 여성들이 기지촌으로 유입되는 경우는 두가지가 있는데, 내국인을 상대로하는 매춘에 종사하다가 끌려오는 경우와 바로 기지촌으로 오는 경우이다. 이들은 가난한 노동자, 농민의 딸이거나 결혼가정 출신이 많고, 강간 당한 경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괴로워한 나

머지 기지촌에 들어오기도 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며, 순결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로부터 탈피하여 과거를 묻지 않는 미국으로 가서 사는 것이 유일한 꿈이다. 기지촌 여성들이 매춘 행위를 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들을 안정되고 건강하게 사회 속으로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들의 90% 이상이 건강한 노동의 경험이었다는 사실은 사회구조의 모순을 더욱 잘 나타내주고 있다.

기지촌 여성은 분단국가의 현실

이 낡은 이 시대의 정신대이다. 변태와 퇴폐를 일삼는 미군을 상대하고, 미군의 변태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테크닉 교육을 받기도 하며, 미군으로부터 온갖 피해를 당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마땅히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생활하고 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여성들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남는 것은 병과 빚 뿐이다. 실제로 많은 수의 여성들이 미군과 국제결혼을 하지만, 미군의 사고는 '클럽에 빛지고 있는 여성을 돈을 주고 샀다'는 소유의식이 강해 부부관계 또한 불평등하다. 이처럼 기지촌 여성들은 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버려진 기지촌에서도 미군에게 철저히 예측적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

## 기지촌 활동의 준비과정

### ● 서울지역 여대생협의회 주최

#### 1차 기활학교 참가

6월 24일 오전 10시 해방 광운대

#### 2차 기활학교 참가

7월 19일 오전 10시 청년 서강대

### ● 하루기활 참가

7월 20일 동두천으로

### ● 서강 기활대

6월 말부터 십여차례의 준비모임



### ▶ 하루기활 참여자 ◀

영문 92 박현주

법학 93 허현희

국문 94 박현정

신방 94 이현주

양경희

박희숙

## 하루기활을 다녀와서

기지촌 활동은 농촌활동과는 다르게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다 갈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해보고자 제기된 것이 '하루기활'이다. 본 기활대원이 일주일간의 숙식을 통해 알아나가는 기지촌을 하루동안 체험해본다는 것이다.

서강에서는 본기활을 가지않는 7명의 여학우가 하루기활에 참여하였다. 7명 모두 기활대원 교양과정인 기활학교(7월 19일, 서강대에서)에 참여하고, 서울지역 다른 학교의 하루기활대원들과 동두천으로 떠났다(동두천은 기활을 가는 지역중의 하나이다) 먼저 '동두천 민주시민회의' 의장님의 인도로 동두천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소요산 등반을 하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전날 내린 비때문에 안개가 끼어 소요산 정상에서는 한 치 아래도 볼 수가 없었다. 다시 차에 올라타고서 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 전역을 돌아보았다. 우리나라 땅이면서도 마치 우리가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곳.

짧은 일정 속에서 기지촌의 언니들과 아이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일정으로 두레방 간사이신 현선언니로부터 기지촌에서 살아가는 언니들과 아이들의 삶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직접 보고 접하지 못함으로인해 느끼는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선언니의 이야기는 지금껏 알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하게 해주고 문제를 제기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몸소 체험해보지 못했기에 기지촌의 삶이란 것이 가슴 깊이 느껴지지 않는 하루기활이었지만 기지촌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으로 생각했던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 작게나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하루였다. 그러나 지금의 하루기활은 한계가 너무 명확하므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 주한미군 범죄를 진단한다.

**한** 반도에는 100여개가 훨씬 넘는 미군 기지가 있고 하루평균 5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한다. 미군들은 이 땅 한반도에서 그들의 군화발로 우리민족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한미군범죄의 실상을 살펴보고, 한미행정협정개정운동의 전개를 알아본다. 이 글들은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간 소식지(11호, 12호)에서 발췌한 것이다.

## 개탄할 수 밖에 없는 범죄의 현장

지난 5월 22일 밤 9시 30분쯤 미 육군 2사단 소속 마이클 노엘 이병(20세)이 의정부시 고산동 미군클럽에서 여종업원 조모씨(20세)를 인근의 속칭 '벚밭' 야산으로 끌고가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성폭행했다. 조씨는 콧등과 입술 등이 터지고 어깨와 다리등에 타박상을 입어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노엘 이병은 이날 고산동 소재 미군전용클럽인 다이아몬드클럽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평소 안면이 있는 조씨에게 부근 비디오대여점으로 테이프를 빌리러 가자며 밖으로 유인, 클럽에서 3백여미터 떨어진 야산 공동묘지로 끌고가 소리치며 반항하는 조씨를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한 것이다.

6월 4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술집에서 미국인 토미 오퍼트(28세), 대니 오퍼트(26세) 형제가 한국 여대생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농담을 하는 등 희롱을 하다 이를 말리던 드라마 PD 고모씨(33세)를 마구 때려 전치 24일의 상해를 입혔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미군범죄들이 아무런 댓가없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한 조약들 때문이다. 지난 1992년 윤금씨 살해사건 이래로 3년여에 걸친 여러 단체들의 노력과 민족자주를 바라는 국민들의 힘이 하나로 모여 미군범죄의 심각성은 공론화되었고, 김영삼 정부는 최근 잇따른 미군범죄를 통해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이 집중 거론되자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국민앞에 밝혔다. 하지만, 잠시도 안심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영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의 '부분 개정'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지자체 선거를 의식했던 여론무마용의 성격이 짙다. 정부가 추진하는 졸속적인 한미행정협정의 '부분 개정'을 극복하고 한미행정협정의 '전면개정'을 이루기 위해서 온 국민의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한미행정협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최승환 (경희대 법학과 교수,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 위원)

지난 8월 18일 한미양국은 그동안 미군범죄자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 행사의 제약 등으로 논란이 야기되었던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공식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주한미군이 안보관련 범죄와 살인, 강도, 강간 등의 중범죄를 범했을 경우 한국 경찰과 검찰이 직접 구속, 수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토협정이나 미일협정 등에 비해 불평등한 조항들로 가득차 있는 한미행정협정 중 형사재판권과 관련한 몇몇 조항만을 개정하는 것으로는 협정의 불평등구조를 시정할 수 없으며, 협정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 또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협상은 형사재판권, 민사청구권, 시설과 구역,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 통관 및 관세상의 특혜 등에 관한 '협정본문'과 '합의의사록' 및 '합의개정사항' 모두를 대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문제 등 그간의 협정운용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불평등하고 부당한 모든 조항이 개정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미행정협정은 왜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가?

첫째,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은 한미우호증진을 위해서 시급하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미8군기지 앞에서 미군범죄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가 계속되어 주한미군과 시민간의 감정적인 대립이 격화되는 것은 한미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을 전면 개정하여 미군범죄문제 등에 제도적으로 대처하는 것만이 한미 양국의 우호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한미당국의 인식전환이 요청된다.

둘째,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여 범죄 피해를 적절히 구제하는 것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문민정부의 정통성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불평등하고 부당한 한미행정협정의 관련 규정들을 전면 개정하고 주한미군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을 적절히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요컨대 주한미군은 한국인의 자유와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둔하는 것이지만, 한국인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고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기 위하여 주둔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바라건대 미군당국은 건강한 한미우호관계를 확립하고,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는 선진 민주국가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개정 협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을 위한 법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한미행정협정은 미군범죄 처리와 관련된 22조 형사관할권 뿐만 아니라 31개 조항 모두가 불평등한 독소조항으로 가득차 있다.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미군측의 책임면제, 1억평에 달하는 미군기지의 무기한 무상사용, 미군 범죄, 피해에 대한 한국인의 손해배상권 제약, 미군의 밀수와 미군PX 불법유통 등을 통한 거대한 암시장의 형성, 1만 5천명에 달하는 미군부대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 박탈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는 다른 것은 다 내버려두고 22조 형사관할권만 개정하겠다고 하고, 더우기 한미행정협정 개정에 대한 미국측의 강한 반발을 생각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 나서지 않으면 1991년 1차 개정과 마찬가지로 졸속적이고 미온적인 개정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민족의 주권이 침해받고 유린당할 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민족의 자주를 위해 떨쳐 나섰던 소중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다시한번 민족의 저력과 단결이 필요한 때이다. 한사람 한사람이 나서서 한미행정협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그것을 커다란 하나의 힘으로 모아나갈 때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 작은 정성과 힘을 모아서 민족의 주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서명명부가 필요한 곳에서는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전화 744-1211)로 연락하면 서명명부와 안내 유인물을 받을 수 있다.

서명명부는 운동본부에서 모아 한미행정협정 개정에 대한 국회, 정부 청원 시 국민들의 의지로서 책임있게 전달되고, 주한미국대사관에도 전달된다.



# 삶을 포기한 여성들인가?

## — 한국 사회의 매매춘

**기** 지촌의 매매춘은 미제국주의의 성침탈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매매춘'이라는 큰 줄기 속에 한 가지일뿐이다. 이제는 정부의 공공연한 방조 속에 우리사회의 필요악으로 인식되어버린 매춘여성들.

애인의 순결을 지켜주기 위해 매춘여성에게로 발길을 돌린다는 남성, 매춘여성들은 그들의 삶을 포기한 거라며 웃으며 얘기하던 여성--그들은 매춘여성들의 현재를 있게한 원인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 우리사회에서 매춘 문제는 '여성 개인의 타락'이라는 문제로만 여겨져 왔지만 이는 한국사회에 매매춘을 형성시킨 구체적인 사회구조적 모순들을 간과한 것이다. 오늘날까지 법으로는 금지하고 겉으로는 방관하며 뒤로는 지원, 육성해온 정부의 정책 속에서 매춘여성들은 구조적 모순의 피해자로 인식되지 못한 채 인간으로의 기본적인 권리도 갖지 못하였고 사회 속에 편입되지도 못하였다. 그렇다면 한국 매매춘의 실태는 어떠한가? 원인들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1. 한국사회 매매춘의 실태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지역으로 유명해진 미아리 텍사스타운, 청량리 오파팔, 서울역 부근, 용산역 일대, 영등포역 주변, 그리고 지방도시들. 그러나 우리사회 전체의 상업적인 성산업에 비하면 이들 지역은 방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70년대 이후 접객 서비스 부문이 비대화되면서 호스티스, 맛사지 걸, 안마사, 면도사 등의 직종에 여성이 대거 고용되어 간접매춘행위(이를 산업형 매춘이라한다)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 미군 상대의 성거래와 외국인 상대의 기생관광까지 합한다면 그 규모는 어마어마해지고 이를 모두 포함한 우리 나라 매춘여성의 수는 120만에서 150만명에 이른다. 이 숫자는 생산직 여성 노동자 90만을 훨씬 넘는 숫자이다.

#### 1) 매춘 여성의 생활

한번 매춘을 하기 시작한 여성은 그 곳에서 영영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



장 큰 이유는 매춘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포주, 켄무, 기동서방, 인신매매인 등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조직때문이다. 이들은 매우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매춘여성에게 기생하여 살아가며 여성들에게 큰 빚을 안기고 여성들이 탈출할 때는 잡아와서 가혹하게 폭행함으로써 여성들을 붙잡아 둔다. 또, 매춘여성들이 가장 큰 반감을 느끼는 사람으로 경찰을 꼽는다. 포주들과 결탁해 여성들의 돈을 가져가고, 고객이 서비스 불만족으로 환불을 요구하며 여성을 고발한 경우에 무조건 여성들만을 처벌하거나 상납금을 받아내는 등 고통을 더해주는 경찰일 뿐이다.

#### 2) 외국인과의 매매춘

한 때 매춘여성들을 '외화벌이에 앞장서는 애국자'라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떠들어 대던 한국정부. 70년대를 전후로 정부가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기생관광이 급격히 번창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수요자는 일본인 관광객이었고 그들은 주로 하층 노동자로 국내에서 동경도 한번 못가본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기생파티를 하고 2박 3일 여행을 하는데 드는 돈은 일본에서 소요되는 돈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20여년이 흐른 지금도 기생관광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인과 다름이 없다면 언제나 일본인 편을 드는 경찰--그들의 보호는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군기지의 거의 대부분

은 치외법권지역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땅 입에도 미국의 한 도시를 옮겨 놓은 듯한 시설과 보호가 있다.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하는 매춘여성들의 가장 큰 위험은 미군에 종속적인 정부로 인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92년의 윤금씨 살인사건을 기억한다. 살인범 마를이병이 무기징역에서 15년으로 감형된 결과는 기지촌 여성들의 불평등한 예속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2. 한국사회 매매춘의 원인

#### 1) 정부의 무책임과 관료행정

지난 61년 11월 9일 '윤락행위 방지법'을 제정 공포한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법적으로 매매춘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거의 없었다. 특수관광 호텔 등 특정지역의 외국인 상대 매매춘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적용을 보류하거나 선도산업을 위해 규정해놓고 있는 보호지도소는 법제정 30년이 넘는 지금 아직 설립조차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고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일도 그냥 지나치고 있다. 남성이 매춘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윤락행위 방지법 4조), 포주가 매춘여성의 빚을 빌미로 빠져나가 지 못하게 하는 행위(11조) 등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하는 유일한 일은 매춘여성을 처벌하는 것 뿐이다. 또한 '윤락행위 등

특히 남녀차별적인 이중적 성윤리는 매매춘을 존속시키는 기본요인이 된다. 계급사회에서 지배자의 위치에 서게 된 남성들이 만들어낸 '매매춘은 필요악'이라는 논리는 남성의 강한 성적욕구로부터 일반여성의 정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매춘은 필요하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구상에 존재해 왔다는 등 매매춘을 정당화시키는 성차별적, 이중적 성윤리를 내포하고 있다.

방지법'은 지난 30여년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산업형 매춘을 전혀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벌금액도 매우 적은 수준에 머물러 비현실적인데 그나마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 상황이다. 포주들과 손을 잡고 눈감아주는 대신 정기적인 상납금을 요구하고 매춘여성들의 돈을 뜯어내 자기 잇속을 채우는 경찰에 대한 방관은 정부의 관료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 2) 여성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었다.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들의 절반수준도 안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의한 착취를 견디지 못하고 매춘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70년대 이후 접객서비스 부문의 여성노동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로, 산업형 매춘은 날로 증가하고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필요한 계기와 적절한 댓가만 주어진다면 성의 상품가치를 높여 소비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게 한 것이다.

## 3) 이중적 성윤리

매춘을 하게 되는 여성들의 1/3은 인신매매로, 2/3는 스스로 선택하는 여성들이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여성들이라해서 그들을 비난할 수만은 없다. 이들은 대부분 가출을 하게 되면서 매춘을 시작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나 가정의 학대로 인한 가출이 거의 대부분이다. 가출 후 성폭행을 당하게 되면 순결 이데올로기로 인해 삶을 포기하게 되고 체념한 채 매춘에 들어

서게 되는 것이다.

특히 남녀차별적인 이중적 성윤리는 매매춘을 존속시키는 기본요인이 된다. 계급사회에서 지배자의 위치에 서게 된 남성들이 만들어낸 '매매춘은 필요악'이라는 논리는 남성의 강한 성적욕구로부터 일반여성의 정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매춘은 필요하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구상에 존재해 왔다는 등 매매춘을 정당화시키는 성차별적, 이중적 성윤리를 내포하고 있다.

## 3. 해결방안은?

### 1) 매춘여성의 자립대책

매춘여성들이 매춘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하나의 원인은 생활상의 어려움이다. 놀이방, 공부방을 많이 설치해서 자녀양육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처벌위주로 되어있는 성병검진제도를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치료위주로 고쳐서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해야한다.

순결 이데올로기에 빠져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고, 매춘을 필요악이라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한다. 여성들이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편견없이 건강한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용성있는 기술 교육으로 우리 사회 속에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2) 매매춘 중개인 근절

매춘을 하는 여성만을 단속해서는 매춘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일시적인 단속 등으로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의 여성들은 또 인신매매를 당하는 현실이기때문에 이들을 옹호하는 주

변의 가시들을 모두 끊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있다. 중일전쟁 이후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었을 때 중국과 전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번성한 매매춘지역이었던 중국 상해시 당국은 매춘 여성들을 잘못된 사회구조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여성들을 매매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이들 주변에 발붙여 있는 조직폭력배들을 없애나가는 것을 정부의 중요한 임무로 삼고 대책을 마련하여 실천에 옮겼다. 매춘여성들에게 '나도 피해자'라는 인식 심어주기, 성병치료,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 순결 이데올로기 극복을 위한 결혼 주선 등이 주된 내용이다. 10여년에 걸친 사업 끝에 상해의 매춘은 자취를 감추었다. 물론 과거의 매춘여성들은 건강한 노동자로서 상해의 책임있는 시민으로 변화하였다.

## ◆ 서강 기활대 활동 보고



## “우리들의 일주일은요...”

## 두레

방의 하루는 10시에 시작한다. 10시 이전부터 아침식사 준비를 하여 10시를 전후로 해서 대원들과 아침식사를 마친 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각 10시에 출근을 하시는 동두천 두레방 간사 김명분 언니와 아침조회를 한다. 하루일정 공유와 명분언니로부터 언니들에 관한 이야기, 동두천 상황에 대해 얘기를 듣다보면 “이모! 나 왔어!!” 하는 승화의 목소리가 들린다. 4살의 승화는 두레방에 가장 자주 나오시는 윤정언니의 아들이다. 꼬마 승화와 윤정언니는 오토바이를 타고 거의 매일 두레방으로 쉬러 온다.

기활대원에 너무나 익숙한 윤정언니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일들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 앞에 풀어 놓는다. 맨 처음 얘기할 때의 시선은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명분언니에게 있었지만 이튿날은 이미 우리 한명 한명의 눈을 보며 얘기하고 계셨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느낀 것은 선배 기활대원들에 대한 고마움이다. 어떻게 처음 보는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가슴아픈 사연을 그토록 자연스럽게 털어놓을 수 있느냐는 우리의 질문에 명분언니는 두레방의 회원인 언니들은 기활을 온 학생들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는다고 얘기하셨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두레방의 고정 프로그램인 공동식사 시간이 돌아온다. 공동식은 언니들과 두레방을 묶어주는 중요한 고리인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식사를 제 때에 하지 못하는 언니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얻는 친근감의 폭으로도 그 중요성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식사 뒤 Tea-time의 담소를 나누고 2-3시쯤 두레방 회원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기활대원들은 공부방 학생들의 선생님이로서의 준비를 하게 된다.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은 모두 국민학생이고 3시, 4시, 5시 세 번으로 나뉘어서 온다. 두레방이 있는 보산동 일대에 사는 보통 아이들과 함께 간간히 혼혈아들도 오는데 방학기간이라서 주로 방학숙제와 문제집 풀기 등을 가르쳐 주고 20분 정도 짬을 내어 게임과 율동, 노래 등을 하였다. 이 곳에 오는 혼혈아들은 대부분 무엇인가가 부족한 듯 앞전한 분위기다. 한국 아이들은 혼혈아들을 따돌리고 괴롭히는 분위기라서 이들의 아픈 상처를 지속적으로 다독여줄 수 있는 전문교육인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 『부대 방문』

## 동두

천에 기활학생들이 들어간 이후 동두천 미군기지에서는 공문으로 학생들의 부대방문을 금지시켰다. 정식으로 미군기지에 들어갈 수는 없었으므로 우리가 택한 차선택은 밖에서도 훤히 들여다 보이는 기지내의 골프장을 보는 것이었다. 우리의 상상대로 광활한 미군의 골프장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한국인이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는 한국 내의 미국. 그리고 그 땅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그들의 태도를 보여주듯 벌레 먹은 잔디 한 포기 없는 골프장은 슬프도록 예뻐했다.

## 『회원집 방문』

## 회원

들이 두레방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직접 기활대원이 회원들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느낌이 사뭇 달랐다. 우선은 마로만 들던 집안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언니들로부터 손님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언니들과 함께 식사와 간식을 준비하고 가족과 같이 TV를 보는 동안 어느덧 더욱 친밀해진 느낌을 얻을 수 있었다. 회원집 방문을 하며 비로소 우리는 동두천을 잠깐 엿보려 온 관찰자가 아닌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일주일을 동두천인으로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지역조사』

## 보산

동 일대는 여타 다른 지역과는 다른 구성을 갖는다. 미군부대 앞에 뚫려 있는 큰 도로는 부대가 생긴 후에 만들어진 듯 하고, 바로 도로 앞에 상가처럼 생긴 단층건물이 꼭 이어져 있는데 간판이 아닌 대문이 조그맣게 달려있어 상가가 아닌 주택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얼핏 들여다 본 대문 안에는 미로같은 조그만 길도 나있고 층계도 보이고 여관같이 여러개의 방문이 보인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곳의 방값은 매우 싸서 주로 클럽에 다니는 여성들이 집을 놓고 잠을 자고 하는 숙소라고 한다.

그 뒤로는 수십개의 클럽들이 있다. 이들의 규모는 영세적인 수준이며 밤중에는 영업을 함에는 불구하고 그 시간조차도 이태원 등과는 대조적인 음침한 분위기였다. 간사님의 얘기로는

점점 미군들도 그 곳 클럽을 자주 이용하지 않고 주말이면 이태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옛날보다 많이 없어진 편이라고 했다.

## 『대학생회 간담회』

## 동두

천시에는 역사가 48년이 된 대학생회가 있다. 초기의 활발한 활동에 비해 좀 뜸하다가 다시 활발해졌다고 한다. 이 대학생회에서는 주로 지역발전과 교육문제에 관한 활동을 펴고 있던 중 기지촌 활동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가 간담회를 제이하게 되었다고 했다. 식민지 조국 모든 곳이 기지촌이듯 보산동 일대만 떠나면 그들이 자란 정든 고향이기에 자신들의 고장 자체가 기지촌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것에 대해 가장 큰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듯했다. 대학생회의 지역발전이라는 맥락하에서 기활대원이 가장 중점에 두었던 기지촌 여성의 문제는 갈등 아닌 갈등을 빚게 되었다. 하지만 그 두 큰 문제의 출발점도 해결점도 모두 한 곳에 있음을 확인하며 다음에는 좀 더 발전된 관계를 갖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담회를 매듭짓게 되었다.





## 『클럽방문』

## 마지

막 날인 금요일 저녁, 우리는 겉으로만 보던 클럽을 직접 가보게 되었다. 서슴없이 "Fuck you!" 하며 손을 내밀어 보이는 미군과 추파를 던지는 미군들 사이를 비집고 말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음악이 쿵쿵 울려대는 클럽에 들어갔다. 내국인은 미군전용클럽에 들어갈 수 없으나 '한국 여성'은 제외이기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넓은 stage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테이블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미 미군과 겨안은채 몸을 흔들고 있는 젊은 여성들도 있고 미군에게서 꽃을 받고 싶다는 듯(꽃을 줄 때의 의미는 밤을 같이 보내자는 뜻이다) 교태스럽게 춤을 추는 여성의 그룹들도 눈에 띄었다. 여성들이 매춘에 이르는 과정과 배경등을 공부하고 예전에 그런 생활을 했던 언니들을 친언니처럼 친근하게 느끼면서도 우리는 우선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었다. 클럽 몇군데를 더 돌아다닌 뒤 두레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美헌병들이 무전기를 들고 급히 다니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하고 뒤를 쫓았다. 들리는 바로는 어떤 미군이 한국여성을 강제로 어디론가 끌고 갔다고 했다. 또 윤금이씨가 일했던 곳도 직접 찾아보면서 오늘도 또 다른 윤금이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였다. (윤금이씨는 동두천의 한 클럽에서 일하던 여성으로 1992년 10월 28일 자신의 단칸방에서 자궁에 콜라병이 박히고 항문에 우산대가 꽂혀 세제가루를 뒤집어 쓴 상태로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범인은 미 2사단 소속 마를 이병으로 밝혀졌으며 당시 들끓는 여론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가 15년으로 감형되어 현재 복역중이다)

두레방에서 5일간 활동을 한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아직도 우리 클럽에 들어가 혹시 미군들이 닿지나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몸을 파는 여성들과는 다른 사람임을 표시하려 애쓰고 그 곳에서 교태부리는 여성들을 보고 분노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화를 내며 한 가지 질리는 것이 있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인 윤정언니, 복조아줌마, 윤미언니와 다른 사람이 아니란 것이었다. 결코 음탕하지도, 그것을 즐기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아직 그들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분노뿐만이 아닌 고민까지 하게 된 출발점 위에 서있게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달라진 점인 것이다.

## ◆ 회원집 방문기 ◆

## 거침없는 독선에 실린 아픔

"... 이 여자의 열악한 삶을 그대로 둔 채 어느 성직자가 이 여자의 사상을 다른 정숙한 어떤 것으로 바꾸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악한 삶의 존재조건에서 키워온 삶의 철학을 부도덕한 것으로 경멸하거나 종신 총 윤리의식으로 바꾸려는 어리한 시도도 그 본질은 폭력이고 위선입니다..."

-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中 장녀촌의 노랑머리 -

윤미언니 덕으로 가는 좁은 골목들을 지나치며, 우리는 어떤 분일까 많이 궁금해 했다. 언니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잔슨, 잭슨이라는 두 아이가 있었는데 잭슨은 입양된 상태이고 지금은 잔슨을 키

우며 육인과 동거하고 있다는 것 뿐이었다.

아이를 위해서 아이스크림이랑 이것 저것을 사면서 보았던 언니덕 근처의 혼혈아들은 서로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국적 불명의 어린 아이들의 맑은 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

언니의 방에 들어서자 너무나 반갑게 맞아 주신다. 어떨까라고는 생각했지만, 여기저기 너저분한 물건들, 살림, 옷가지들은 그녀의 생활을 대변해 주고 있었다. 벽에는 잔슨이 벗어 놓은 미제 상표들이 있었다. 어쩌면 잔슨의 맘 속에 미국에 대한 동경이 싹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기활대 다섯 명이 앉기에는 너무 좁았던 거실에는 잔슨의 침대가 있었고 안방에는 육인과 잠자리를 같이할 큰 침대가 있었다. 언니 집안의 이러한 분위기들은 언니를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왜 그럴 수 밖에 없었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저녁을 들고 갔던 언니는 우리에게 국이 풀만을 내주신다. 그리고 손이 많이 간다던 고구마순 김치를 내주시며 이야기 하신다. 우리에게 너무나 깎듯한 존대말을 쓰는 잔슨은 학원을 3곳이나 다닌다고 한다. 언니의 자식에 대한 각별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한 각별함은 자신은 비록 미군을 상대해야 하지만 보통의 가정을 꾸미고 아이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보통의 가정주부를 버리는 밑에서 비롯된 것일거다.

언니는 몇 번이나 아파야만 했다. 미군을 상대하면서 아파야 했고, 잔슨과 잭슨을 낳으면서, 또 잭슨을 수만리 타국 땅에 보내며 언니의 가슴은 찢겨졌을 것이다. 거침없이 내뿜는 언니의 독설 속에서도 내 마음에 슬픔과 아픔이 느껴졌던 것은 조금이나마 그 분의 심정을 엿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인터뷰

## 동두천 두레방 김명분간사

## 세상에는

아직도 삶은 아름다운 것. 그래도 세상은 살 만한 곳이란 걸 확인시켜 주는 이들이 있다. 조용하고, 묵묵하게 그들의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를 태우는 분들이 있다. 지난 7월 24일 우리 서강 기활대가 동두천 두레방에서 만난 명분언니도 그들중 한 분이실 것이다.

“명분” 언니란 별명만큼, 정말로 넉넉하고 모든 걸 이해해 줄 것 같은 언니는 갑작스런 필자의 전화에도 호탕한 웃음으로 대해 주셨다. 처음 본 사람에게도 며칠 전 보았던 사람인 듯 친근히 대하시는 언니의 따뜻함은 동두천 두레방에서 수년 간 터득한 ‘덕’이 아닐까 싶다.

“대학시절 학생회 활동을 하며, 여성운동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기활에 참여하게 되었지. 그 때가 대학4년 때지” 언니도 처음엔 우리와 같이 기활대로 기지촌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기지촌의 현실—그것은 너무나 양키버린 문재-을 보았음에도 언니로 하여금 그곳에 있게한 힘은 무엇일까? 그것을 언니는 사람들과의 믿음, 신뢰감이라고 부른다. 자신들의 부모나 친구에게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언니에게 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언니는 덧붙였다. 또한 여성의 문제들을 고민하는 삶을 택한 것은 기지촌 현실등 사회에 누적된 여성 억압의 굴레들이 더 이상 다른 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한다.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자신에게서, 나아가 여성들에게서...

낙천적이거나 보이는 언니에게 가장 힘든 건 세상의 벽과 편견이 너무나 두텁고 짙다는 것이라 한다. “두레방 회원들에게 나쁜 일이 있었을 때 무척이나 속상하고 힘들지.” 인간과 인간의 교감. 그것은 명분언니께서 두레방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얻어낸 소중한 삶의 산실일거다. 그리고 언니는 그러한 ‘관계’가 문제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지적하셨다. 그 관계엔 어떠한 편견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끝으로 명분언니는 이 땅에 사는 젊은이들이 기지촌의 현실에 대해 좁은 시선이 아니라, 사회, 경제, 자본주의 등 갖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것이라며, 보다 폭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을 당부하셨다.

두레방에서 열심히 언니의 삶을 사시는 언니에게,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신 언니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 명분언니 화이팅!!!

## 기활을 마치고...

7월 24일부터 5박 6일 동안의 기활에서 나는 또 한번의 깨어짐을 느꼈다. 머리로만 커지는 성장이 아니라 가슴으로 커지는 성장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작은 관계 속에서부터 내 문제로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움직임들은 내가 그 기간동안에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던 내용중 하나였다. 사실, 너무나 거대하게만 느껴졌던 매춘 문제, 주한미군 문제들은 갖 이 세상에 눈을 뜨려는 95학번에게는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두레방에서 아줌마와 언니들과의 만남들은 적어도 그것이 왜 문제가 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는 물음들을 계속 상기시켜 주었다.

여전히 내 맘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편견들을 안고서 돌아오는 동두천 역으로의 발걸음은 그리 가볍지 만은 않았다. 하지만 내게 가장 확실했던 건 우리가 두레방이라는 공간 속에서 확인했던 사람과 사람사이의 믿음이었다. 아마도 그 믿음과 신뢰감이 있었기에 5박 6일의 짧은 시간은 일정속에서도 우린 가슴으로 느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한동안은 엉키다 엉켜버린 문제가 나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이젠 더 정확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해 기활 속에서 가졌던 생활자세를 내 인생의 연장으로 생각해야겠다.

여협에서 우리들은 우리가 확인했던 사람과 사람사이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한다. 기활 신문을 통해 서강 학우들에게 기활에 대한 홍보를 기획하고 있으며 기지촌 지원행사 등을 통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후속작업을 일구어 나가고 있다. 또한 5박 6일 동안의 우리의 끈끈했던 정을 잊지 않고 두레방과의 연속적 유대관계의 매개체로서 정기모임 등을 추진하고 있다.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참가했던 두레방 어린이 잔치에서 짧은 기간 동안 우리의 제자였던 어린이들과 또 어머님들을 모시고 보람있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의 삶에 일침을 가할 기활. 적극적인 삶, 주어진 삶을 원한다면 겨울 기활을 놓치지 말기를!

후속작업이란 마음만큼 쉬운일은 아닐 것이다. 이젠 정해놓은 일정 속의 활동이 아니라 그 기활대의 정신을 스스로 삶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지촌 문제처럼 어쩌면 끝이 없을 싸움을 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의 고뇌를 수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게 지속적인 삶, 고뇌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는 그 밑바탕엔 아줌마와 언니들이 우리들에게 보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서려있을 것이다.

철학 95 양개숙



### ▶ 서강 기활대원 ◀

신방 93 송혜라

영문 93 김선영

국문 94 박현정

경영 94 정혜영

철학 95 양개숙

(일명 양혜진)

### 겨울기활안내

기지촌 활동에 대한 인식이  
새로와지셨습니까?  
여러분이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인간과 인간의 교감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을 이해하려는 마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 참가비두요...)  
여름 기활대의 정기모임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5시  
여학생협의회실에서 있습니다.

### 두레방 후원인 안내

두레방은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두레방 빵판매, 공동식사,  
영어교실, 상담 등을 통해  
기지촌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C관 2층 여학생협의회로  
찾아오십시오.